

광주 세계양궁선수권 폐막...국제 스포츠도시 위상 굳혔다

5·18민주광장서 결승전 74개국에 생중계...민주·평화 도시 세계에 각인
안내·접근성·편의체계 등 과제로 ... 22일~28일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지독한 폭염과 게릴라성 호우 등을 뚫고 성공리에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18면>
광주시는 76개국 731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를 2015 유니버시아드, 2019 세계수영대회를 잇는 ‘국제스포츠 도시’ 성과로 평가했다.
5·18민주광장 결승 무대가 무등산·전일빌딩245·급남로 시계탑을 배경으로 74여개국에 생중계되며 도시 브랜드를 각인시킨 점도 강조됐다.
다만 현장 안내 체계와 선수단·관람객 편의, 이동 동선 등 운영 세부에선 일부 아쉽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번 비장애인 선수권대회에 이어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22일~28일)에서는 좀 더 세밀한 대회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도시마케팅 지속가능 모델 제시=14일 세계양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결승전 티켓은 총 3448매 중 2665매가 판매돼 77.3%의 판매율을 기록했다.

도심 한복판 5·18민주광장에서 치른 결승은 장소 자체가 가진 민주·인권·평화의 상징성과 방송 노출 효과를 동시에 거뒀다는 게 조직위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2025 광주방문의 해”와 연계해 경기장 내 광주 홍보관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XR 체험, 경품 이벤트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했다.

리투아니아·헝가리·에콰도르·이집트 등 해외 선

수단이 ‘호스트 시티 투어’에 참여해 광주와 담양의 음식·문화 콘텐츠를 체험한 점도 도시마케팅의 실익으로 소개됐다.
같은 기간 ‘G-페스타 가을 시즌’ ‘호남관광문화주간’ ‘광주 미식주간’과 연동하고 DRT(수요응답형 교통)를 주요 거점에 투입해 스포츠·관광·문화의 결합을 시도했다.
지속가능한 성과 측면에서는 저개발국 대상 양궁 ODA(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프로그램으로 선수 초청·장비 지원·기술 전수를 진행하고, 다화용 컵·텀블러 세척기·친환경 체험 등 ‘친환경 운영’을 전 과정에 적용한 점은 이번 대회의 백미로 꼽힌다.

여기에 스포츠과학 컨디셔닝 부스 운영, 공식 호텔의 맞춤형 식단·케이터링, 119 구급·의료 인력 상시 대기 등 선수 보호 체계도 마련됐다.
개·폐회식이 없는 일정 구조를 시민 참여형 전야제 ‘오프닝 쇼, 활의 나라’로 보완했고, 300여 자원봉사자와 3200여 시민 서포터즈가 안전·통역·환경정비를 맡아 악천후 속에서도 경기 운영을 뒷받쳤다.

대한양궁 대표팀이 단체·개인전에서 금·은·동 메달을 두루 수확하며 종합 1위를 차지한 성과는 두터운 저변과 경쟁력을 재확인하게 했다는 평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40만 시민의 성원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스포츠로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플랫폼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안내·접근성·이동 편의 등에서 일부 아쉬움=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 대회가 지난 12일 막을 내렸다.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경기장에서 지난 10일 리커브 남자 개인 결승전이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세계양궁선수권 대회는 운영측면에서 일부 개선 과제를 남겼다. 우선 관람·취재·선수 이동을 둘러싼 안내·접근성·편의 체계가 일관되지 작동하지 못했다는 일부 불만이 나왔다.

영여 표지판과 휠체어 동선 안내가 일관되지 않아 입구를 찾지 못해 오랜 시간을 허비했다는 외국인 관람객이 있었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엘리베이터 이용 안내도 일부 혼선을 빚었다.

폭염과 집중호우가 겹친 대회 기간 관객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배려가 아쉬웠다는 점도 지적됐다. 무더위 쉼터의 냉방·수용 규모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다.

국제양궁장 일부에선 선수들이 마시는 음용수의 수급이 빠듯했다는 현장 반응도 있었다. 선수단을 훈련과 경기일정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도 보완과제로 지목됐다. 선수단 이동에선 공식호텔-연습장(광주국제양궁장)-결승경기장(5·18민주광장) 간

배차 간격이 특히 오전 시간대 촘촘하지 못해 택시로 이동했다는 사례가 확인됐다.

결승경기장으로 5·18민주광장을 활용한 만큼 현장 안내 스크린과 경기 진행 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강화해 유동 인구와의 소통을 넓혀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관람객을 배려해 안내·접근성·이동·편의를 보장하는 것도 과제로 남았다.

/특별취재팀=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육아 아빠들이 뭉쳤다”

광주시, ‘육친소데이’ 눈길...긍정적 육아문화 확산

광주시가 광주김치타운에서 아빠들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체험 행사를 열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광주시는 아빠들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육아 멘토링(육친소 데이)&아빠랑 떠나는 김치박물관 탐험’을 개최했다.

이번 ‘육아 멘토링(육친소 데이)&아빠랑 떠나는 김치박물관 탐험’에는 130여 가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찾아가는 육아멘토링, 각두기 담그기, 키팅 만들기, 김치박물관 견학 등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소통과 교감을 나눴다.

“광주 100인의 아빠단” 회원들이 멘토로 나서 실제 양육 경험을 공유해 긍정적 육아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 100인의 아빠단”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아빠 모임으로, 3~9세 자녀를 둔 아빠들이 참여해 육아 경험을 나누고 체험 활동을 함께한다. 올해 제7기 아빠단은 123명으로 구성됐다.

광주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아빠의 양육 참여가 자녀 정서 안정과 성장에 도움이된다는 점을 알리고, 앞으로도 가족친화 정책과 생활 속 육아 실천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인숙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본부장은 “멘토 아빠들의 경험담이 초보 아빠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줬다”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육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전두환 유해 ‘연희동 집 마당’에 봉안 검토

사망 후 4년째 장지 못구해

오는 11월 사망 4주기를 맞는 전두환 유해를 ‘자택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씨는 측 관계자는 14일 언론에 “유해를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약 4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 중이다.

전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이에 유족은 ‘복讞망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전씨의 회고록에 따라 휴전선 인근에 안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2023년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토지를 가계 약했으나 언론 보도로 안장 계획이 알려지며 지역 내 반발이 일었고 부담을 느낀 토지주가 계약을 포기했다. 이후 전씨 측은 현재까지 장지를 구하지 못했고, 결국 부인 이순자씨와 가족의 소유권이 공고해진 연희동 자택의 마당을 전씨의 마지막 거처로 고려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연희동 자택을 전씨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서울

서부지법은 “전씨 사망으로 추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각하했다.

정부가 항소하며 11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선고된다. 현재 전씨의 추정금 2200억원 중 860억원가량이 환수되지 못한 상태다.

연희동 자택에는 이순자씨가 머물고 있으며, 경찰 전담 경호대 인력이 24시간 상주한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가족들은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연합뉴스

전남도, 주요 등산로·둘레길에 공식 도로명 주소 부여

전남도가 도내 주요 등산로와 둘레길에 공식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는 ‘스마트 행정’을 선보인다.

전남도는 “여수 고락산둘레길, 담양 병풍산 숲길 등 5개 시군 15개 구간의 주요 숲길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등산로나 탐방로는 명확한 주소 체계가

없어 방문객들이 지도나 내비게이션으로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웠다. 특히 산속에서 조난이나 부상 등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대가 정확한 사고 지점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식 주소를 갖게 된 숲길은 ▲여수시 고락산돌

레길 ▲담양군 병풍산 숲길 ▲고흥군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길 9개 구간 ▲강진군 보은산길 ▲영광군 불갑저수지 데크길 ▲불갑데마공원 2개 구간(상사회길·상사화1길) 등이다.

방문객들은 스마트폰 지도 앱 등을 통해 자신의 현재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안전사고 발생 시 119나 경찰에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를 가능하게 해 보다 빠른 구조 활동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분할합병공고

에스씨에스 주식회사(“당사”)는 2025년 09월 10일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백전글로벌의 밸류 제조사업을 분할하여 당사에 합병하는 인적분할방식의 분할합병을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번 주주총회는 상법 제530조의3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동법 제530조의2항에 의거 당사는 주식회사 백전글로벌의 채무 중 분할합병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서한 회답을 부담하며, 주식회사 백전글로벌은 당사에 이전되지 않는 나머지 사업부문의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해관계자 및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25년 10월 15일까지 당사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5일
에스씨에스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1로 294(회차동)
대표이사 권영환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5. 9. 12. 주주원천서면결의로 자본금의 총액 금300,000,000원 중 금299,700,000원을 감소하여 금3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 금액 금10,000원의 주식 29,970주에 대하여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대로 유상소각하여 발행주식 총수 30,000주를 3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5일
선진설비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251번길 9, 상가 302호
(영촌동, 광명하이츠아파트)
대표이사 국중광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	------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권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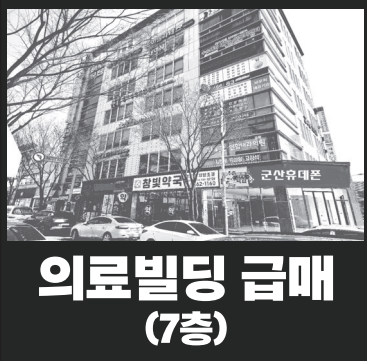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조병현(40201-1XXXXXX)
- 최후주소 :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길1길 51, 102동 1008호(상산아파트)

피상속인 망 조병현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5년단4369호로 신청하여 2025년 9월 11일 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9월 15일
상속인 : 조은생(070927-4XXXXXX)
법정식 서한면 수월암4길 153-2, 가동 402호(삼두빌라)
상속인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재운
• 신고기간 : 2025. 9. 15. ~ 2025. 11. 25.
• 채권신고처 :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재운
법정식 서한면 수월암4길 153-2, 가동 402호(삼두빌라)

의료빌딩 급매 (7층)



병의원 개원 최고, 현재 수익률 6%
소아청소년과, 통증과, 약국(영도기능)
2층 내과 실면적 170평 준비 중
월 3천 1백, 주차 23대, 빌딩 외 환색선,
공용주차장 50대, 군산중심, 롯데마트 앞.

매 72억, 인수가 20억

010-3646-8700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